

2023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차보고서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2023 Annual Report

PART 1. 2023 연차보고서 발간사

발간사	4
-----	---

PART 2.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설립배경	6
조직도	7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요 연혁	8
한눈에 보는 CIFC 10주년 성과	10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발자취	12

PART 3. 회원기관 동정

회원기관 동정 기고(IBK기업은행)	14
---------------------	----

PART 4. 2023 사업보고

국제금융협력포럼	
01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및 10주년 기념행사	18
02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
현지 금융협력포럼	
03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22
04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24
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05 베트남 초청연수 및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26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지식공유세미나	
06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와의 지식공유세미나	28
07 World Bank(WB)와의 지식공유세미나	29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위탁연구용역	30
CIFC 간행물 발간 / CIFC 10주년 기념사업	33
정례회의 및 워크숍	34

발간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금융협회가 모여 설립된 이래 전세계의 주요 기관들과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금융분야의 발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여한 금융회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파트너 국가 및 기관들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동안 해금협은 다양한 금융 주체들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원기관간 정보공유와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해 전 세계 52개국과 교류 및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협력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해금협의 25개 회원기관들이 52개국, 207개 해외 파트너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것이기에 더욱 뜻깊고 소중한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2023년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금융협력사업이 이 전으로 회복하면서 대면 행사 및 해외 협력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금협과 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 온 국제금융협력포럼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두 번 개최되며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태국(6월), 한-인도

네시아(9월) 금융협력포럼을 통해 양국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현지 파트너 기관과 신규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지식공유세미나(11월)를 통해 한국의 금융인프라, 오픈뱅킹,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알아보고 협력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에 있어 '해외 진출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등 금융혁신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속에서 더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K-금융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기관 여러분께서도 저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을 향한 기회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이항용

설립배경



201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모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진출 및 금융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해외금융협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2년 11월 제 2차 회의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금융 부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금융협력 업무를 전담할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3년 2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인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를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설립했습니다.

이후, 협의회는 활동을 체계화하고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명부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5개의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요 연혁



2013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의 출발

- 2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제1차 브라운백미팅 개최
- 6월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연수 개최
- 9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 11월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4 금융 세일즈 외교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다

- 5월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5월 한·미얀마 ADB 금융협력포럼 개최
- 8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 12월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2015 지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의 수요를 정책과 잇다

- 5월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개최
- 6월 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을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
- 9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 12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간



2016 글로벌 금융시장에 맞춰 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다

- 3월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 초청연수 개최
- 7월 미얀마 계획재무부 초청연수 개최
- 8월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학기술부 초청연수 개최
- 10월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연수 개최



2017 현지 포럼 활성화로 더욱 긴밀히 교류하다

- 7월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개최
- 9월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개최
- 11월 제4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2018 공동 초청연수 지원으로 시너지를 높이다

- 7월 몽골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 개최
- 8월 미얀마 기획재정부 초청 공동연수 개최
- 10월 라오스 재무부 및 투자계획부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예탁기관 대상 공동 초청연수 개최



2019 미래 어젠다 공유로 디지털 금융의 길을 닦다

- 7월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세미나 개최
- 10월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세미나 개최
- 12월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2020 사업 다각화·내실화로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다

- 7월 CIFIC 브로슈어 발간
- 11월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세미나 개최
- 12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간



2021 새로운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을 도모하다

- 4월 CIFIC 2020년 연차보고서 발간
- 5월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2월 CIFIC 뉴스레터 발간 및 홈페이지 개편



2022 대면사업의 재개, 해외사업 재점화에 박차!

- 6월 제8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 9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
- 10월 해금협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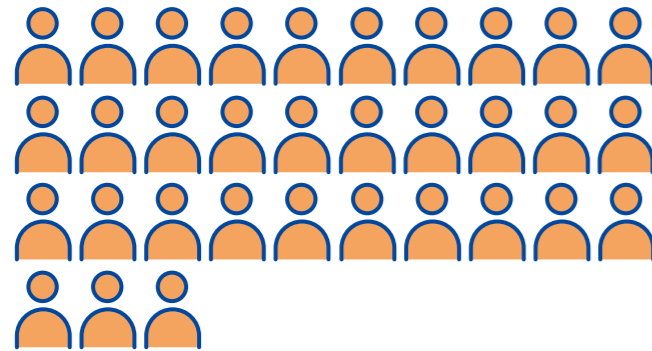
2023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다

- 2월 제 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및 10주년 기념행사
- 6월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 9월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 12월 제 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한눈에 보는 CIFIC 10주년 성과

2023.2월 기준

• 대한민국 금융의 위상을 높인 국제금융협력포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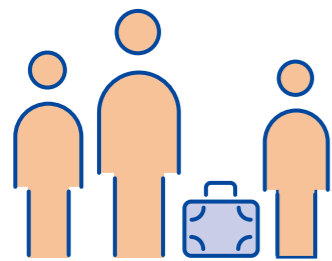
역대 국제금융협력포럼 참여국

33

 개국

• 전세계 K-금융의 좌표를 찍다 •

전체 참석자 수



218

 명

함께 남긴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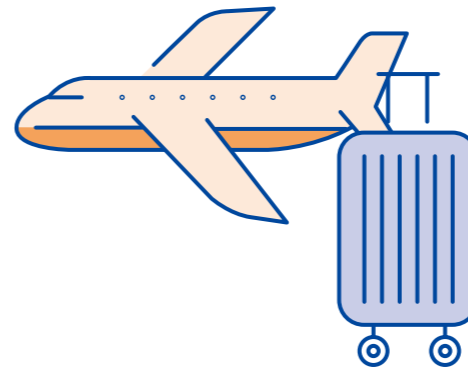


105,645

 miles

•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그리며 글로벌 금융 발전의 씨앗을 뿌리다 •

역대 해외 출장기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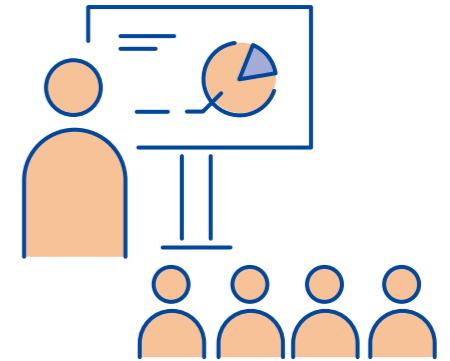
 박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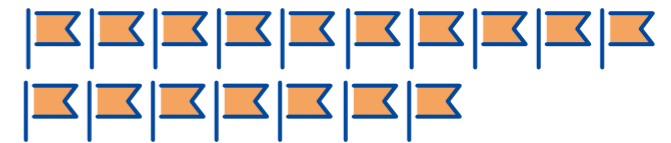
 일

역대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수

28

 회

역대 초청연수 참여기관



17

 개국

47

 개 기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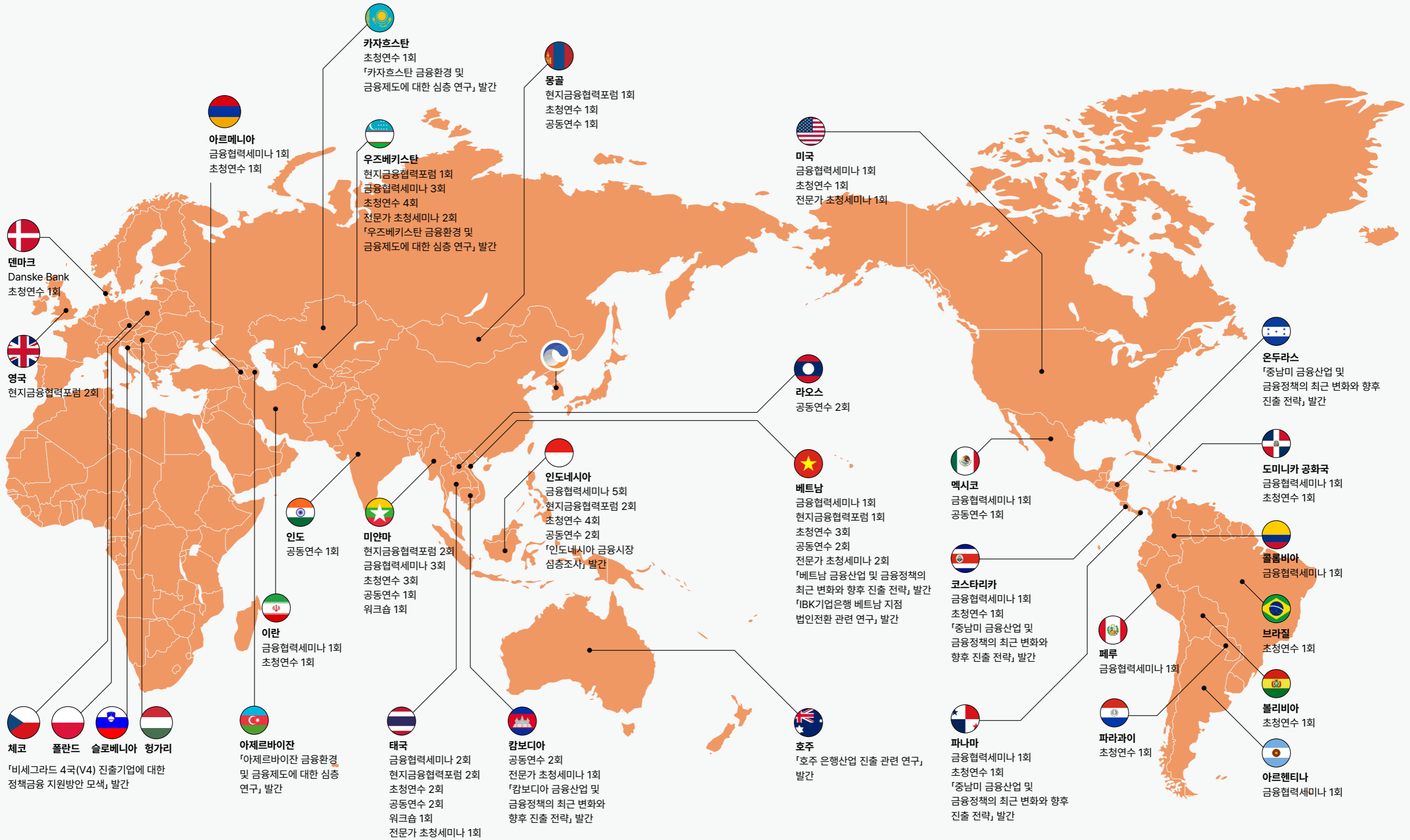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52개국 207개의 해외파트너 기관들과의 금융협력을 통해 회원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10년

세계 52개국

해외파트너 기관 207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3 연차보고서

회원기관 동정 기고



해외금융협력협회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회(이하“해금협”)는 2013년 출범 후 십여 년 동안 회원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해외 금융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원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은행(이하“기업은행”)을 비롯한 회원기관의 해외진출에 큰 힘이 되어주신 해금협에 이번 기회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께 저희 은행 동정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착실히 성장해 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1961년 8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국내외 영업 인프라 확충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금융 관련 자체 경쟁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마다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총자산 500조를 바라보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업은행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 대비 9조원 초과한 총 6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고, 3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원에 적극 힘써 왔습니다. 여기에, 국외점포 및 CIB 부문에서도 이익 기록을 다시 쓰는 등 내실 있는 균형성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양하며 공공성과 상업성 측면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선도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선순환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벤처자회사 설립, M&A센터 구축 등 기업 성장금융경로 완성을 향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이 보유한 13개국 60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많은 역량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기업은행은 최근 글로벌 파이낸스와 아시아머니와 같은 해외 유수의 금융전문誌로부터 ‘ESG 관련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대한민국 최고의 중기금융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고, 은행장이 기업은행을 대표해 OECD 본부가 선정하는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대표 인물’로 선정되는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저희 은행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베트남, 폴란드 등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그러한 여정에 해금협이 함께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금협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속에서도 해외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해왔고, 이것은 저희 기업은행을 비롯한 많은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회원기관들의 기관별 수요를 반영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해외사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해금협이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 수출 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저희 기업은행은 협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금협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IBK 기업은행장 김성태



2023 사업보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차보고서

국제금융협력포럼

- 01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및 10주년 기념행사
- 02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현지 금융협력포럼

- 03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 04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05 베트남 초청연수 및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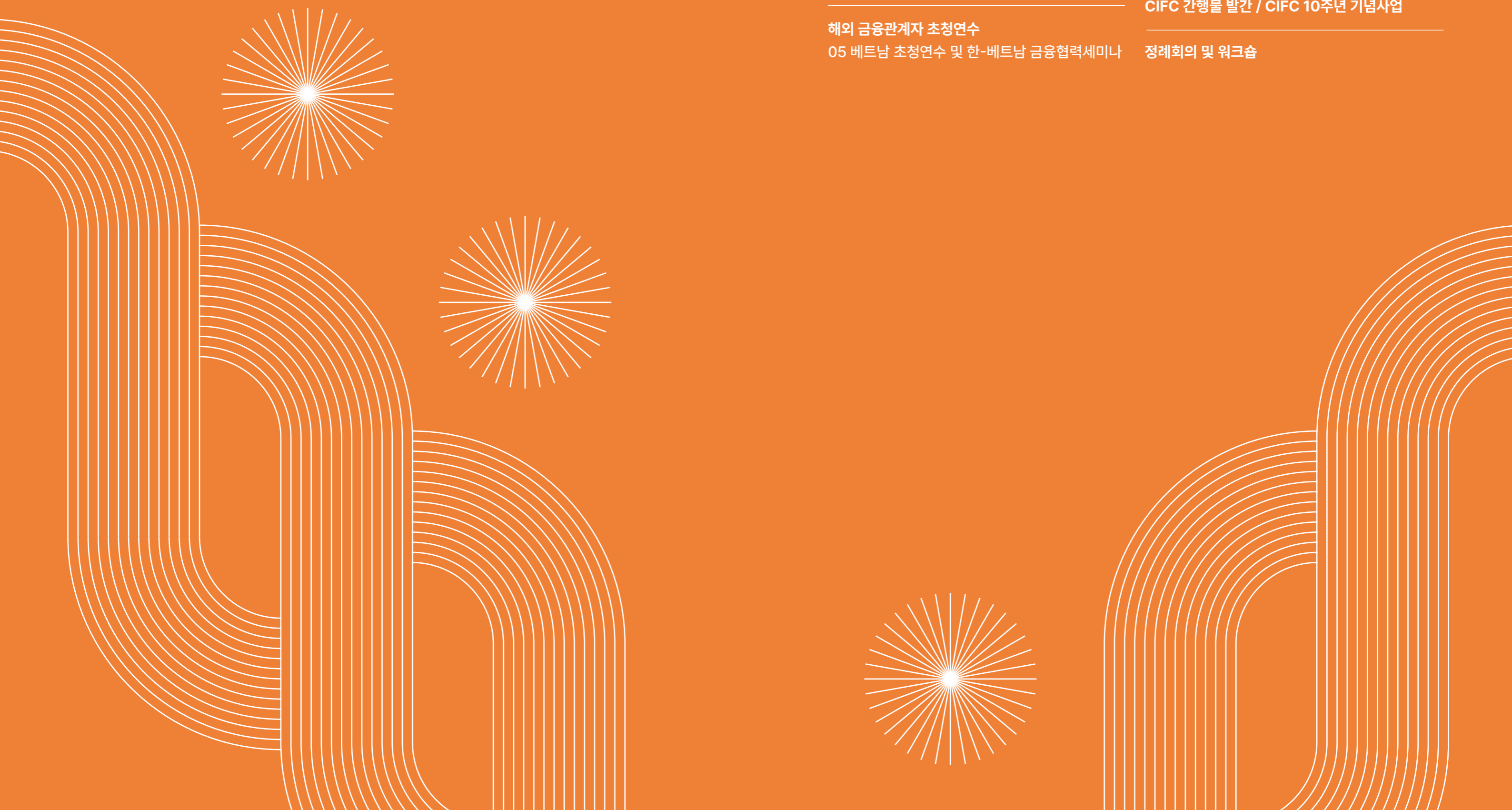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지식공유세미나

- 06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와의 지식공유세미나
- 07 World Bank(WB)와의 지식공유세미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위탁연구용역

CIFC 간행물 발간 / CIFC 10주년 기념사업

정례회의 및 워크숍



01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및 10주년 기념행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3년 2월 20일(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협력의 미래(Glob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를 주제로 일곱번째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2014년을 시작으로 국내외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금융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해왔으며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협의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재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제 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제 7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은 2023년 2월 20일(월) 서울 드레곤시티 컨벤션타워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 Teresa Czerwińska 유럽투자은행(EIB) 부총재, 주요 협력국가들의 외교사절 등 최고위급 해외 인사들과 말레이시아, 모로코,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총 11개국의 주요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고위급 인사 등 58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하여 협의회 회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10주년 기념식

이번 포럼에서는 협의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협의회와 회원기관의 금융협력사업 성과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종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협의회가 다양한 금융 주체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국가, 금융발전 등 조건을 뛰어넘어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온 한국 금융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포럼 참여국들과 공유한 것이 협의회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Mahendra Siregar 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의 세계정세 상황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협의회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규제기관이 감독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계 기관들에게 금융시장을 안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석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은 협의회와 지난 노력이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회원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협력을 통한 글로벌 상생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그동안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강화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바가 큰 5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02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3년 12월 4일(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협력 동향(Trends in Global Financial Cooperation for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제 8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관계자를 연사로 초청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금융협력 동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제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금융 추세

Lalita Moorthy,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Equitable Growth, Finance and Institutions, World Bank Group(WBG)

WB의 Lalita Moorthy, Regional Director는 지속가능금융이란 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에 재정자원을 투자하거나 규제 및 보고 프레임 워크를 구축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로서 개입하여 기업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 위험 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금융의 국제적 추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공기업을 중심으로 ESG 채권과 녹색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속가능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상호 호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간의 지식공유에 있어 후발국가에 대한 포용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Thomas Kessler, Principal Finance Specialist, Asian Development Bank(ADB) / Yoonhee Kim, Financial Sector Specialist, Asian Development Bank(ADB)

ADB의 Thomas Kessler, Specialist와 Yoonhee Kim, Specialist는 2030 기후 비전(ADB 2030 Climate Ambition) 설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목적으로 금융 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 상품 개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ADB가 지속가능금융을 매우 중시하며 프레임워크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발도상국은 금융시장 인프라, 녹색 채권 평가 체계, 신용보증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금융 추진 과정에서의 자본시장 역할

Auvo Kaikkonen, Head of EIB Regional Representation to China and Mongolia, European Investment Bank(EIB)

EIB의 Auvo Kaikkonen, Head of EIB Regional Representation는 EIB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소개하고 최근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지역 외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녹색 투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혁신, 개발을 핵심 주제로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IB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며 이처럼 금융기관이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투명한 자본 집행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 매력도를 높이고 민간 주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금융인프라 활용: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Alexander Saveliev, Director, SFS and Trade Financ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EBRD의 Alexander Saveliev, Director는 EBRD가 소련 동맹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기관 사업의 50%를 민간 주체와 협력하여 개인 및 기업의 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BRD의 무역촉진사업(TFP, Trade Facilitation Programme)은 지난 8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이중 녹색 TFP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초창기 협력 기관에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그린금융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점차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녹색전환을 주요 가치로 신사업을 발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언급하였다.

디지털 전환 사례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

Daniel Alejandro Stagno Izaguirre, Competitiveness, Technology and Innovation Specialis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IDB의 Daniel Alejandro Stagno Izaguirre, Specialist는 디지털 전환 사례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모두 중요한 주제이며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만 디지털 전환이 모두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전환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관련 기술협력 뿐만아니라 재무협력, 안정적 제도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IDB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금융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이용 지원,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연결고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 및 규제 분야가 취약한 지역이기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와의 ESG 협력 기회 및 핀테크 현황

Aisha Reheem, CEO, Farmz2U / Sungho Kang, Senior Expert of Climate Financ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Farmz2U의 Aisha Reheem, CEO는 아프리카에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디지털 혁신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재 한-아프리카 간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이후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하였다. 한편 UNIDO의 Sungho Kang, Senior Expert는 UNIDO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클린테크 데이'라는 행사 개최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03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3년 6월 13일(화) 금융위원회, 태국 중앙은행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한-태국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태국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태국 방콕 소재 협의회 사업 파트너, 현지 금융관계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금융시장 및 은행산업 현황,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해 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태국 국제금융협력포럼

한-태국 금융협력포럼에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박종규 의장이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양국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 Sethaput Suthiwartnarueput 총재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해 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향후 한국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증선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고도화된 금융시장 운영 노하우를 태국에 전수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태국 간 금융협력 현황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포럼은 The Future of Finance: Embrac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을 주제로 태국 중앙은행 Tharith Panpiemras 부총재,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서 회원기관들이 모여 양국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태국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미래 태국 중앙은행 Tharith Panpiemras 부총재

태국 중앙은행 Tharith Panpiemras 부총재는 태국 자금 시장에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자본시장의 역할과 경쟁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태국 소매금융시장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태국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 디지털 결제, 데이터 활용에 대해 태국 금융당국의 금융 인프라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빠르게 진화하는 은행 환경에서 규제와 기회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부연구위원

권흥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금융 수요에 대한 변화, 은행간 경쟁 심화, 빅데이터 및 AI, 탈금융중개화 등으로 은행부문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한편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및 AI 출현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은행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가계대출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정보비대칭 속에서 은행간 경쟁 심화는 정보 생산, 대출 선택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켜 금융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은행 환경에서 은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은행 중개 개체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혁신 친화적인 정책 제시 등이 필요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국간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태국은행의 Pariwat Kanithasen 결제시스템정책 부국장은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 중인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태국과 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가 양국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Kasikon Bank의 Tawan Thammanichanon는 평균 거래액 1% 미만의 수수료, 24시간 거래, 추가 거래비 없는 투명성, 디지털 채널, 계좌 승인 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인 소액 결제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그밖에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혁신 사례로 오픈뱅킹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데이터 시스템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 KCB는 대안신용평가 등 한국의 금융제도 현황과 발전 방향, 각 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04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Indones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과 공동으로 2023년 9월 4일(월)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Forging the Future of Finance: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and Indonesia”를 주제로 지속가능금융의 현황과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포럼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을 비롯하여 현지 금융관계자와 회원기관 출장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국의 변화하는 금융제도 및 규제, 정책 등을 설명하고 회원기관과 인니 금융기관 간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금융협력포럼에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박종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2019년 9월에 이어 4년만에 다시 개최된 두 번째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의 의미와 지속가능 금융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협력 관계가 긴밀히 유지 되어왔음을 강조하며, 양국 민간 금융회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Mahendra Siregar 금융감독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지원에도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며, 지속가능 금융의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Jarot Suroyo Deputy Director와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선임연구위원이 양국의 지속가능금융에 대하여 발표 하였으며 이밖에 한국측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KCB 등이 발표에 나서 한국의 보험/보증제도, 증권 및 결제시스템, 신용정보 등 인도네시아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로벌 관점으로 본 지속가능금융의 모범 사례

월드뱅크 Francesco Strobbe,
Lead Financial Sector Economist

Francesco Strobbe, Lead Financial Sector Economist는 최근 지속가능 금융의 글로벌 추세를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규제 및 감독, 기후변화와 거시경제 정책, 친환경 투자 장려 및 기후 위험 관리, 친환경 금융상품 등 월드뱅크의 정책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눈에 띄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속가능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융영역의 발전을 뛰어넘는 영향력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더욱 폭넓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금융 현황과 과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Jarot Suroyo, Deputy Director

Jarot Suroyo, Deputy Director는 그린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현재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임을 언급하였다. 2015년-2019년까지 1차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현재 2021년-2025년 2차 로드맵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분류체계 강화, 탄소 규제 실행, 공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 분류체계 개발, 위험관리 체계 개발, 그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발, 주주들을 위한 인식 및 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원칙 실행, 매년 지속가능 액션 플랜 및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사회·환경 책임 실행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규제 의견교환, 기술지원, 공동 연구, 기업 간 협력 등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저탄소 전환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구감소 등으로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저탄소 전환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저탄소 전환으로 1.5°C를 억제하면 전세계 피해비용은 최대 1,800조 달러, 한국은 약 3,090조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피해비용 절감 효과는 2050년 이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기후변화 피해 절감으로 인한 기후편익과 경제적 외부 효과에 따른 투자편익은 저탄소 전환 투자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패널토론

첫 번째로 보험·보증 세션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이 각각 한국의 ESG 시스템과 녹색보증 사례, 탄소평가모델, 데이터 서비스 및 자동차 보험 관련 빅데이터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측에서는 보증협회, 보험협회에서 각각 ESG 추진 계획, 인도네시아 보험업권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 번째 자본시장 세션에서 한국거래소는 탄소거래시장의 구조와 현황, 인도네시아 거래소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발전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 형태 크라우드펀딩, 인도네시아예탁결제원은 인도네시아 시장 상황과 발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인프라 세션에서는 한국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과 해외 컨설팅 사례, 코리아 크레딧뷰로가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PEFINDO 크레딧뷰로 및 크레딧뷰로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인프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05 베트남 초청연수 및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3년 10월 29일(일)부터 11월 2일(목)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재무부, 중앙은행 소속 공무원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베트남 금융산업의 최신 현황과 국내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및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를 시작으로 여러 회원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는 2023년 10월 30일(월) 조선히텔 라일락룸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박종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이 환영사를, 주한 베트남 Nguyen Vu Tung 대사가 축사를 발표하였으며 베트남 금융산업의 최신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및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션 1에서는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 Vu Thi Thu Thao 사무관이 Current Issues in Vietnamese Insurance Industry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의 보험 산업은 외국 금융회사와 재보험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흐름임을 밝히며, 보험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국가신용정보센터 Le Anh Tuan 부센터장은 Credit Information Systems in Vietnam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베트남의 신용 보고 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구축되어 왔으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감독 아래 신용 정보 센터(CI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SBV의 은행 감독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신용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세션 2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신한은행에서는 Shinhan Bank's Entry in Vietnam & Cooperation with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SGI서울보증은 SGI Insurance Hanoi Branch 그리고 NICE평가정보에서는 NICE Information Service in Vietnam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베트남 초청연수

베트남 금융관계자 초청연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재무부 그룹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보증기금,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을 방문하였으며, 중앙은행 그룹은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 은행연합회, KCB, NICE평가정보,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을 방문하였다.

01



생명보험협회에서는 한국 생보업계의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법규 개정 현황 및 생명보험상품 신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02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한국 손해보험산업의 개황을 들었으며, 한국 손해보험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03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한국의 신용보증제도와 기관의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전환, 녹색금융 등 혁신 금융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04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데이터 전송-관리 시스템 등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IT 인프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차보상 시스템 등을 참관할 수 있었다.

05



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신용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험신용정보 관련 인프라와 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06



IBK기업은행에서는 기업은행의 개관과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07



SGI서울보증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지점에 대한 소개를 듣고 베트남 신용정보센터(CIC) 가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08



은행연합회에서는 연합회 임원과 면담 후 국내은행산업 및 은행연합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09



KCB에서는 한국의 Credit Bureau 산업 현황과 디지털 시대의 대안신용평가를 통한 금융 혁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양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10



NICE평가정보에서는 국내 신용정보 인프라 소개와 NICE가 제공하는 WEB 서비스 시연을 받았으며 향후 베트남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11



금융보안원에서는 기관의 주요 업무 소개와 지속가능한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보안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06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와의 지식공유세미나



2023년 11월 28일(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본부에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해외협력 파트너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IDB의 Connectivity, Markets and Finance 부서와 해금협지원센터 및 회원기관 등 총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은 한국의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재와 미래 전망, IDB-한국거래소 협력 로드맵,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사례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 기관별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IDB의 여러 부서와 회원기관 간의 협력 기회를 논의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 파견 중인 기획재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소속 금융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IDB와 해금협 회원기관 간의 신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07

World Bank(WB)와의 지식공유세미나



2023년 11월 29일(수),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World Bank(WB) 본부에서는 WB 및 IMF 관계자들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출장단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WB의 Finance, Competitiveness & Innovation 부서와 WB 서울사무소, 해금협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한국의 금융인프라와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을 비롯



한 한국의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오픈뱅킹 현황,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지역 통합 협력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 세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WB의 금융인프라, 금융안정, 자금조달 관련 부서와 회원기관 간의 개별 면담이 마련되어 신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워싱턴에 파견 중인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소속 금융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지 경제 현황과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 및 기관 간의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위탁연구용역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회원기관의 다양한 연구주제 수요를 반영하고 해외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실제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원기관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기술보증기금(미주개발은행(IDB)의 중남미 개발금융 역할과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향 모색),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CABEI 공공자산 관리 고도화), 해금협 중장기 발전방안 등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했으며, 각 기관별로 용역수행자를 선택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미주개발은행(IDB)의 중남미 개발금융 역할과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향 모색

기술보증기금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태혁 교수

「미주개발은행(IDB)의 중남미 개발금융 역할과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향 모색」 연구에서는 IDB의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조사했다.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중남미로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투자펀드, 보증기금, 출연기금 등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현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 조성이나 보증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국내 기업이 G2G 사업이나 ODA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며, 특히, 보안·치안장비 및 시스템,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했다.

KAMCO-CABEI 공공자산 관리 고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개발협력진흥원
| 광재성 교수

한국개발협력진흥원은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은행(CABEI)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우수한 국유재산 관리 경험을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국가와 공유하고,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CABEI 회원국 중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사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유재산법과 같은 법령체계의 존재 여부,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절차와 흐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법령체계 측면에서 한국의 국유재산법과 같은 독립된 일반법의 유무를 살펴보고,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확인하고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흐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시스템 수출 및 컨설팅 추진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법령체계와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한국의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여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였다.

해금협 중장기 발전방안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의 다양한 수요와 네트워크 사업의 편중, 그리고 인력 및 자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네트워크, 정보관리, 연수, 연구 등 4개 필라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 김정한, 김현태 연구위원

협의회는 네트워크 사업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조사팀을 신설하여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더불어,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단기적으로 회원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철저히 선정하고, 이를 그룹화하여 효과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금융OD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해외 주요국 보험산업 관련 법·제도 동향 및 사례 연구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최근 보험업은 디지털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RMI경영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일본, 미국, 대만 등의 보험산업 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보험산업 관련 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RMI경영연구소 | 이순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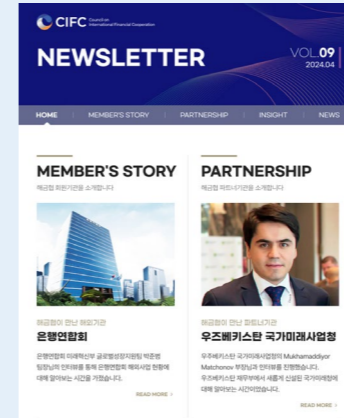
주요 규제 동향은 해외진출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화, 보험분야 담합 규제,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주요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은 포화된 국내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미국은 보험업에 대한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GDPR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통해 데이터 보유 기간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산업은 적절한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CIFIC 간행물 발간

CIFIC 이메일 서비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해외진출 및 금융관련 최신 정보, 국제기구 보고서, 다자개발은행 컨설턴트 모집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이 서비스는 2023년에 1호부터 6호까지 총 여섯 번 발송되었으며, 각 호마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CIFIC 뉴스레터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회원기관 및 파트너기관 소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4차례(분기) 배포하였다.

뉴스레터 5호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박정훈 원장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또한, 해금협 10주년을 맞이한 특별 기고글을 수록하였으며, 제7회 국제금융협력 포럼의 개최 소식도 전하였다.

뉴스레터 6호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소개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영임 재경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신 동향을 전달하였으며, KOICA ODA 트렌드와 관련된 기고글을 수록과 더불어 태국의 맛집 및 기념품 리스트도 함께 제공하였다.

뉴스레터 7호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소개와 함께 태국 중앙은행 Tharith Panpiemras 부총재와의 인터뷰, 마이데이터 트렌드와 관련된 기고글, 국가별 금융당국 홈페이지 주소 현황을 제공하였다.

뉴스레터 8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과 활동 내용과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의 Francesco Strobbe Lead Economist와의 인터뷰,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과 관련된 기고글을 수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맛집 및 대형업체를 소개하였다.

CIFIC 10주년 기념사업

CIFIC 10주년 기념보고서 발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CIFIC 10주년 기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협의회 역사와 다양한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소개하고, 회원기관의 해외금융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며, 미래의 금융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협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보고서는 협의회 역사 및 주요 성과, 23개 회원기관의 성과를 소개하고 부록으로 협의회 개요와 회원기관 담당자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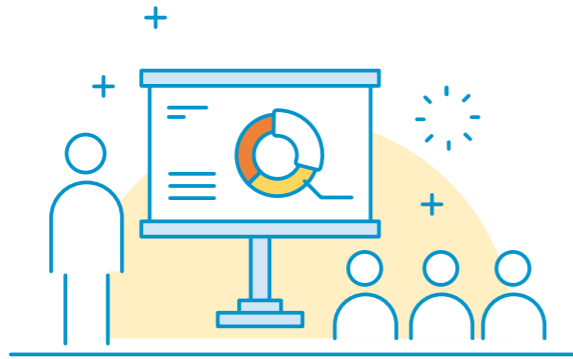
CIFIC 10주년 기념 VR전시관 제작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10주년을 맞아 Web VR을 기반으로 한 기념관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협의회 역사와 다양한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회원기관의 홍보관도 개설하여 24개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부각하였다.

기념관은 협의회 역사와 발전을 소개하는 갤러리와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갤러리, 그리고 특별행사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청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회원기관의 홍보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회원기관의 개별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정례회의 및 워크숍



1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1월 27일(금)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2022년도 해금협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3년도 해금협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2023년도 연회비 납부, 신용회복위원회 회원자격 취득, 신입 감사 및 총괄간사 임명 등을 의결하기 위해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3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14:00
장소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안건	워크숍, 연구사업,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지원, 한-태국 현지금융협력포럼 등 해금협의 주요 상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

4 월 정례회의 및 워크숍

일시	2023년 4월 28일(금) 11:00
장소	서울 북한산 파라스파라
안건	한-태국 현지금융협력포럼, 연구사업, 뉴스레터 6호 발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등 해금협의 주요 추진 사업 및 해금협 발전방안 연구용역,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등 해금협 사업방안에 대해 논의

5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5월 26일(금)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한-태국 현지금융협력포럼, 베트남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등 해금협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

6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베트남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등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7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베트남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등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9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9월 22일(금)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베트남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회원기관 공동 출장 지원,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등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10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베트남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2023년도 사업비 예산 전용, 회원기관 공동 출장 지원,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등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11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11월 17일(금) 14: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회원기관 공동 출장 지원, 제8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23년도 사업비 예산 전용 II, 해금협 발전방안 등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12 월 정례회의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6:3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안건	2024년도 해금협 연회비 인상(안) 의견 수렴 결과, 2023년도 해금협 사업 결과, 2024년도 해금협 사업 계획(안) 보고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발행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8층
전화 02-3705-6307
팩스 02-3705-6288
홈페이지 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